

근대적 궐내 외교관 의례의 성립과 1899~1902년 경운궁 휴게소의 건립

Constructing Foreign Reception Hall and Modern Royal Diplomatic Protocol in the Gyeongungung Palace during 1899-1902

장 필 구*

Chang, PilGu

(동양미래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bstract

Foreign Reception Hall in Gyeongungung Palace was constructed during 1899-1902 according to Yesigjangjeong (禮式章程), Korean Empire's modern diplomatic protocol. This building is a case worthy of notice, because its construction process was written in Jubon(奏本), Korean Empire's official document. Yesigjangjeong(禮式章程) regulates the process of diplomat's audience with Emperor Gojong. The process suggested that Foreign Reception Hall was designed as the place of the end as well as the beginning for audience. According to the process, diplomat came through main gate, Daehanmun and outer gate of main hall(Junghwajeon Hall, Audience Hall), then arrived at the stair to Foreign Reception Hall. After waiting time in the hall, he was going to be granted an audience with Emperor. And he exited through Foreign Reception Hall as the reverse way. This hall was constructed as western-style. Subcontracted carpenters and wood sculptors and laborers from China represents that chinese workers were prevailed in the government construction at that time. And modern building materials, such as glass, colored brick, sanitary wares and lightings were applied, which showed the new landscape in the middle of Gyeongungung Palace. Above all, official documents related with this hall reveals Korean Empire supervised this construction for diplomatic protocol. That is the identity of western-style buildings in Gyeongungung Palace.

주제어 : 대한제국, 경운궁, 휴게소, 외교의례, 양관, 예식장정

Keywords : Korean Empire, Gyeongungung Palace, Foreign Reception Hall, Diplomatic protocol, Western style building, Yesigjangjeong

1. 서론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서 조선의 의례를 황제국의 예법으로 개선하고 전통적 도시경관을 근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의 중심에 있었다. 궐내의 전각 건축에 있어서도 외국의 건축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량의 양관을 건립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로 1902년까지의 기간은 중층 중화전을 궐내 중심에 둔

황궁 경운궁이 조성된 기간으로,¹⁾ 이 기간 동안 경운궁에서는 전통적인 궁궐 공간이 만들어지는 한편 양관의 건립이 병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그러나 지금까지 경운궁 양관의 건립과정 또는 참

* Corresponding Author : feelnine@dongyang.ac.kr

이 논문은 2016년도 동양미래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1) 홍순민은 1902년 법전인 경운궁 중화전의 완공을 통해 궁궐 공간 구조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홍순민, 「광무 연간 전후 경운궁의 조영 경위와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0호, 2010.8, 33~35쪽)

2) 윤일주는 1900년 전후한 시기의 경운궁 양관 건립이 건축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윤일주, 『한국·양식건축80년사』, 야정문화사, 1965, 56~59쪽) 강성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석조전을 제외한 경운궁 양관의 준공을 1897-1902년 사이로 도출하였다. (강성원, 「20세기전반기 洋式建築構法の 變遷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10쪽)

여 기술자가 사료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진 사례는 덕수궁 수옥헌과 석조전에 불과하다.³⁾ 다만, 최근에는 건립 이후의 시각자료 또는 근래의 보수공사를 통해서 궁궐 양관의 구체적인 면모에 접근하고 있다.⁴⁾ 경운궁 양관은 건립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 때문에 궁궐에 선도적으로 도입된 개별의 근대 건축물 사례로 연구되어 왔다.⁵⁾ 동시에, 총체적으로 경운궁 양관은 대한제국 황실의 권위가 투영된 건축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⁶⁾

이와 같은 배경에서 『주본』(奏本)에 수록된 1899~1902년의 '경운궁 휴게소' 건립 관련 문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본』은 대한제국 최고의결기구인 의정부 회의와 고종의 제가에 관련된 일련의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철이다.⁷⁾ 주본 기록은 경운궁 양관의 건립을 대한제국에서 주관하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궁궐의 의례와 공간속에서 양관이 갖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제국의 의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과 『예식장정』(禮式章程)을 분석하여 근대적 외교관 의례의 절차를 이해하고 경운궁 휴게소의 역할과 경운궁 속 위치를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주본』에 수록된 건축 명세서를 분석하여 경운궁 휴게소 건축공사의 진행과정을 비롯하여 기술자, 자재, 공간구성 측면의 새로운 시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수옥헌의 설계자는 미국인 기술자 J. H. Dye로 확인되었다. (『The Independent』, 1897.10.23; 이순우, 『통감판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2010, pp.145~146에서 재인용)

석조전의 최초 설계자는 영국인 기술자 J. R. Harding이며, 완공까지의 건축과정과 참여한 주요기술자들도 밝혀졌다. (우동선, 「경운궁(慶運宮)의 양관(洋館)들 : 돈덕전과 석조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40호, 2010; 문화재청,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2011, 184~188쪽; 김은주, 『석조전』, 민속원, 2014 참조)

4) 정관현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늦어도 1901년 2월 이전에 건립되었고(문화재청, 『덕수궁 정관현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4, 46~51쪽), 돈덕전은 각종 기사를 근거로 1901~1903년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문화재청, 『덕수궁 돈덕전 복원조사연구』, 2016, 88~90쪽)

5) 강성원, 「德壽宮 石造殿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4호, 2008.04; 강성원·김석순, 「중명전의 기술사적 특징과 수리공사에 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05; 신혜원·한동수, 「덕수궁(德壽宮) 정관현(靜觀軒)의 양식 고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권, 1호, 2005.10

6) 석조전, 돈덕전, 중명전에서 거행된 고종, 순종의 의례에 관한 기록은 경운궁 양관을 대한제국의 근대적 황실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7) '주본'(奏本)의 원래 의미는 국왕에게 올리는 총리대신의 상주문만을 모은 책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규장각 소장된 『주본』(奎17703, 1896.10.09.-1910.08.28.)을 표제 그대로 사용하였다. (서울대학교·규장각, 『주본』,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의정부편, 1995-8, 해설 참조)

2. 대한제국의 근대적 빈례 성립과 휴게소의 조성

2-1. 대한제국의 궁내 빈례와 휴게소의 활용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황제국의 위상에 맞는 국가전례를 실행하기 위하여 근대적 국가전례로서 『대한예전』을 편찬하였다.⁸⁾ 이 중에서 빈례(賓禮)는 외교관 접견 의례의 기초가 되었다. 『대한예전』에서 각국 외교관이 고종에게 국서(國書)를 올릴 때 접견하는 절차를 규정한 「각국사정국서시접견의」(各國使呈國書時接見儀)에서는 입궐한 외교관의 대기 장소로 대후소(待候所)를 규정하였다.

... 皇帝仍證接見日時照會于外部外部通于各使屆時宮內府官僕於仁化門內各使奉國書由正門入宮內府官導至待候所宮內府大臣外部大臣迎之共坐少憩 ...⁹⁾

절차를 살펴보면, 외교관이 국서를 가지고 입궐할 때에는 궁내부 관원들이 인화문(仁化門) 안에 대기하였다가 외교관이 입궐하면 대후소로 인도한 뒤, 궁내부 대신, 외부대신과 함께 담소하였다가 고종을 접견하도록 규정하였다. 접견 후 퇴궐할 때에도 대후소를 거쳐 역순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선 1894년 7월 17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는 외교관들이 고종을 알현할 때에 대후소 문까지 가마를 탈 수 있도록 의안(議案)하였고 고종의 윤허를 받은 바 있다.

... 一, 自今遵萬國通例, 各國使節陛見時, 准其乘轎, 至待候所門外事。... 竝允之。¹⁰⁾

한편 대후소는 휴게소라고도 칭하였다. 1897년 교전소(校典所)의 첫 회의를 경운궁 내 외국 공사 휴게소에서 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스월 십이일 오후 두시에 경운궁 안에 외국 공사들 휴게소로 교전소 회의를 처음으로 거행 하는디 ...¹¹⁾

8) 김문식,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편찬 양상」, 규장각, 제21집, 2009.04, 96쪽

『대한예전』은 국가전례로서 체제가 미비하고 필사 상태도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으며,(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통권35호, 2006, 110-111쪽) 내용에서는 빈례가 특히 빈약하다는 평가가 있다.(김문식, 「고종 황제의 외교관 접견 의례」, 일본학연구, 32집, 2011.01, 35쪽)

9) 『대한예전』, (k2-2123, 1898) 「빈례」, 「各國使呈國書時接見儀」

10) 『고종실록』, 32권, 1894(고종31).07.17

11) 『독립신문』, 1897.04.27., 「교전소 데 일초회의 일기」

휴게소와 대후소는 입궐한 외교관들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용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1902년 5월 13일에는 예식원에서 작성한 「외빈폐현급영송식청의서」(外貧陛見及迎送式請議書)가 의정부 청의를 통해 고종의 제가(制可)를 얻었다. 예식원은 1900년 12월 궁내부에 설치되어 궁내 교섭과 일체 예식 및 문서 번역을 담당하였으며,¹²⁾ 특히 외교관이 궁에 도착한 이후의 의례를 예식원의 고유 업무로 다루었다.¹³⁾ 「외빈폐현급영송식청의서」가 마련된 배경으로는 기존의 『대한예전』에서 빈례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1년 12월 22일 황태자의 청원으로 제기된 고종의 청경예식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¹⁴⁾ 이 청의서는 청경예식을 준비하여 『예식장정』이라는 표제를 달고 인쇄본으로 제작되었고 1902년 6월 23일 각국 공사관·영사관에 배포되었다.¹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의례 절차에는 외교관의 입궐될 경로에 휴게소가 등장하고 있으며,¹⁶⁾ 이후의 실제 접견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실제로 1905~1906년 조선 황실 서양 전례관으로 근무한 엠마 크뢰벨(Emma Krobrel)의 기록에서는 고종 알현을 위한 대기 장소를 설명하고 있다. 크뢰벨 일행은 대안문으로 입궐하여 중명전으로 들어간 뒤, 큰 방에서 다른 알현 예정자들과 함께 대기하였다가 접견실

에서 고종에게 첫 인사를 할 수 있었다.¹⁷⁾

또한 1907년 돈덕전에서 거행된 순종의 황제 즉위식을 다룬 『법규유편』(法規類篇)의 「즉위예식의주」(即位禮式儀註)에서는 행사를 마친 순종이 퇴실하면 입궐했던 대신들이 모두 휴게실로 들어가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 一, 樂作
- 一, 大皇帝陛下還御大次
- 一, 樂止
- 一, 入參諸臣次第退入休憩室
- 一, 大皇帝陛下即位禮式紀念章頒賜¹⁸⁾

당시의 의식을 설명하는 돈덕전 평면도에는 복도를 기준으로 동쪽 알현실과 서쪽 두 개의 휴게소를 확인할 수 있다.¹⁹⁾ 돈덕전이 1901~1903년에 건립되었다는 선행연구를 따른다면, 돈덕전의 휴게소 또한 대한제국의 외교관 의례에 의거하여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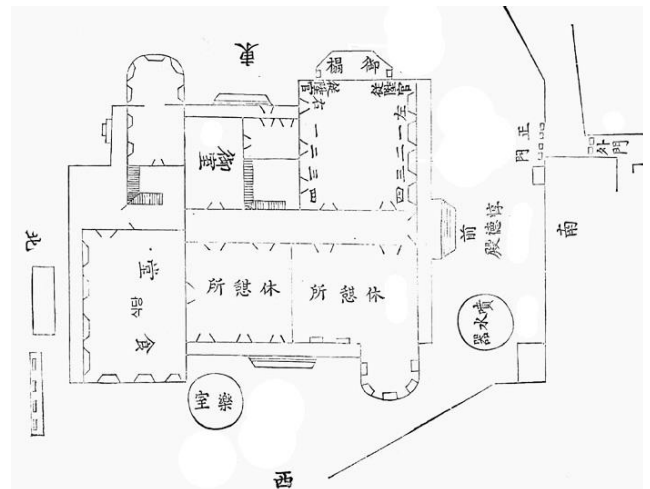


그림 1. 돈덕전 평면도 (출처: 『법규유편』)

대한제국이 추구한 근대적 의례는 외교관 의례에도 분명하게 반영되었으며, 대후소라는 용어가 휴게소로 대체되어 정립되었다. 돈덕전 평면도의 휴게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후소 또는 휴게소는 외교관이 입궐하여 당도하는 첫 공간이며, 고종 알현 전후로 대기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의례에서 규정된 사안이었다.

17) 크뢰벨은 1905-1906년의 기간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 손탁(Marie Antoinette Sontag)을 대신하여 대한제국 황실 전례관으로 활동하였다. 크뢰벨의 활동에 대해서는 엠마 크뢰벨,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되었나』, 민속원, 김명자 역, 2015를 참조.

18) 內閣記錄課, 『法規類篇』, 1908, 규장각 소장 (奎古 48-v.1-5)

19) 돈덕전 평면도는 우동선, 앞의 논문, 2010을 참조.

12) 고종의 망유순 청경40년을 기념하는 청경예식은 1901년 12월 22일 황태자의 청원으로 제기되었고 1902년 9월 17일을 청경예식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02년 9월 전국적인 전염병으로 1차 연기하였고 1903년 4월에는 궐내의 천연두 때문에 2차 연기하였으며, 이후로는 러일전쟁의 전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고종 청경예식의 경과에 대해서는 전우용, 「1902년 황제어극 40년 망유순 청경예식과 황도정비- 대한제국의 '황도' 구상에 담긴 만국공법적 제국과 동양적 제국의 이중 표상」, 향토서울, 제81호, 2012.06; 조영규, 「1902년 청경예식과 전염연구」, 한국음악사학회, 제41집, 2008.12를 참고할 수 있다.

13) 김문식, 앞의 논문, 2011.01, 37쪽

14) 『고종실록』, 41권, 1901(고종38).12.22 예식원은 1902년 3월 19일에 폐현장정(陛見章程)을 의정하였고(『황성신문』, 1902.03.19., 「陛見章程」, 禮式院에서 外國現行例를 參考하여 外國使臣 陛見時接待하는 章程을 議定하였는데 各公使가 國書를 奉呈하거나 公事로 因하여陛見時에는 宮內大臣外部大臣禮式院長元帥府總長二人參領二人詹事一人侍從官一人參理官四人이參預하고 其他 陛見時에는 元帥府總長以下官人만 進參하기로 繕定하여 政府에 送交하였더라), 4월 8일에 의정부에 청의하였으며(『各部請議書存案』, 20책, 1902년(광무2).04.08., 「外貧陛見及迎送式請議書」), 5월 13일에 제가를 얻었다.(『起案』, 5책, 1902(광무2).05.13. 「指令第八號」)

15) 『禮式院來去案』, 1책, 1902(광무6).06.23, 「照會第壹號」 『황성신문』, 1902.06.26., 「陛見節次」, 禮式院에서 外國大使及公領事紳士接見하는 章程을 印刷하였는데 各公使 陛見의 節次를 禮式院에서 上奉할 事로 外部에서 各公館에 聲明하였더라

16) 구체적인 의례 절차는 본문 3-1절 참조.

표 1. 경운궁 휴게소 조성공사 관련 대한제국 정부문서

No.	구분	제목	발송일	발송자	수신자	공사내용·공사비
1 단계	청의서	慶運宮役費增額을 預算外支出請議書 第七十三號	1899.11.13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趙秉稷	議政府議政 尹容善	휴게소 건물신축공사 13,991원1전
	지령	指令 第五號	1900.01.19	議政府參政 金聲根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趙秉稷	
2 단계	청의서	慶運宮休憩所複道所入費를 預算外支出請議書 第九號	1900.01.22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趙秉稷	議政府參政 金聲根	휴게소 양제(洋製) 복도 조성공사 2,673원71전
	지령	指令 第十五號	1900.03.24	議政府參政 金聲根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署理協辦 朱錫冕	
3 단계	청의서	休憩所前後陽室及木柵新建費를 預算外支出請議書 第一百十六號	1901.12.30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署理度支部協辦 李容翊	議政府議政 尹容善	전후양실(陽室)과 목책(木柵) 신설공사 6,536원52전4리
	지령	指令 第四號	1902.02.15	議政府參政 金聲根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署理協辦 李容翊	

* 청의서는 『奏本』, 지령은 『起案』에서 각각 참조.
* 공사내용·공사비 항목은 필자가 추가 작성

2-2. 대한제국 『주본』 속 경운궁 휴게소 건립과정
대한제국의 대표적 공문서인 『주본』에는 경운궁 휴게소 조성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문서가 있다. 1899~1902년 동안 세 단계로 나누어 작성된 문서는 경운궁 휴게소 공사의 재가(裁可)를 요청하는 청의서(請議書)와 부속서류 그리고 의정부가 고종에게 의결 사실을 알리고 고종의 재가(制可)를 확인한 주본(奏本)으로 구성되었다. 고종의 재가는 지령(指令)을 통해서 청의서 발송자에게 회신함으로써,²⁰⁾ 청의로 시작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다.<표 1>

청의서는 대한제국의 재무를 담당하는 탁지부에서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의 명의로 발송되었고 공사 소요 물품이나 인력을 정리한 명세서가 첨부되었다. 청의서는 대한제국 최고 의결기구인 의정부에서 수신하였으며, 고종의 재가를 받아 지령을 작성하고 원 발송처로 회신하였다.

1단계는 휴게소 신축 건물로 1899년 11월 13일에 청의되었다. 청의서 제목에 경운궁역비증액(慶運宮役費增額)이라고 기록되었으므로, 휴게소 신축공사는 경운궁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 1월 22일에 청의된 2단계는 휴게실 복도를 서양식으로 조성하는 공사로서 휴게소가 새로운 건축양식임을 보여준다. 3단계는 휴게실 전후에 양실(陽室)을 증축하고 목책을 신설하는 공사로 1901년 12월 30일에 청의하였다.

일련의 경운궁 휴게소 공사 관련 공문서는 이 공사

20) 지령은 대한제국 府·部·所 사이의 기안문을 의정부에서 모은 『기안』(起案, 奎177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대한제국 행정기관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예산으로 공사비가 집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와 같이, 경운궁 휴게소는 경운궁에 건립된 서양식 근대건축 중에서 건립주체와 예산출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중요하다.

3. 대한제국 외교관 의례의 섭행과 경운궁 휴게소의 역할

3-1. 『예식장정』이 규정한 휴게소 공간

『예식장정』은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청경예식을 고려하여 작성된 상세한 외교의례서로,²¹⁾ 총 5개 예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외교관이나 고용 외국인의 장례식에 관리를 파견하는 「외국인회장식」(外國人會葬式)을 제외한 4개 예식, 즉 「외국사신폐현금영송식」(外國使臣陞見及迎送式), 「신년금경절일배하식」(新年及慶節日拜賀式), 「외국황족폐현금영송식」(外國皇族陞見及迎送式), 「특파대사폐현금영송식」(特派大使陞見及迎送式)은 외교관 또는 외국 황족이 고종을 알현하는 예식의 절차를 다루고 있다. 고종을 알현하는 경로는 공통적으로 입궐→휴게소→고종 알현→휴게소→퇴궐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²²⁾

「외국사신폐현금영송식」에서는 경운궁 정문으로 입궐한 외교관이 휴게소에 먼저 도착하여 대기하였다

21) 『예식장정』은 장서각에 3건(k2-2130, 2131, 2699)이 소장되어 있다. 『예식장정』의 기초적 이해는 김문식, 「대한제국의 외교의례서, 『예식장정』」, 문헌과 해석, 54호, 2011 참조

22) 김문식, 위의 논문, 2011, 31~32쪽

가 고종을 알현하도록 규정하였다.

○皇帝陛下의 特命全權公使及辦理公使가 國書를 奉呈陛見하는 規則
 ... 一 特命全權公使及辦理公使는 皇宮正門으로 入하야 休憩所階下에 至하야 下轎하며 公使出入之際에 宿衛所 士卒이 敬禮를 行할 事.
 一 禮式院參理官一員이 休憩所階上에서 公使를 引導하면 禮式院長은 該所에서 應接할 事.
 一 公使는 禮式院長의 引導로 陛見室에 進行하야 國書를 皇帝陛下의 奉呈하면 陛下계 御서 此를 受하사 外部 大臣의게 交付하시며 此際에 宮內大臣外部大臣或侍從院 卿이 侍立할 事. ...

「신년급경절일배하식」에서는 외교관이 지정된 문으로 입궐하여 휴게소에 당도하면 예식원장의 응접을 받는다. 퇴궐도 휴게소를 경유하도록 하였다.

○外交官及勅奏任相賞官雇外國人新年拜賀式
 ... 一 陛見하는 各外交官과 勅奏任相當官雇外國人은 指定한 門으로 入하고 休憩所에 至하면 禮式院官員이 休憩所로 引導하야 禮式院長이 應接할 事. (중략)
 一 退出時는 前項과 如게 前導할 事. ...

「외국황족폐현급영송식」에서는 외국 황족이 황궁 정문으로 입궐하여 휴게소에 당도하면 다과를 제공받은 뒤에 고종을 알현하도록 규정하였다.

○外國皇族來到時接待節次
 ...陛見當日에 禮式院長이 黃四人轎一坐와 傳語官一員과 兵卒一中隊와 巡檢三十人을 帶同하고 該皇族賓館에 前往하야 該皇族을 皇宮正門으로 伴接以入할 事.(중략)
 一 該皇族이 休憩所에 來到下轎하면 外部大臣과 宮內大臣이 階前에서 迎接하며 親王或君이 休憩所內에서 引接하며 休憩時間에 茶菓를 進할 事.
 一 陛見時刻에 大皇帝陛下皇太子殿下계 오서 陛見室에 御座하시면 禮式院長과 外部大臣이 該皇族을 引導하야 陛見室에 陞하며 此時陛見室階前에 樂을 奏할 事. ...

마지막으로 「특파대사폐현급영송식」에서는 특파대사가 입궐하면 휴게소에서 예식원장의 다과를 대접받고, 폐현실에서 물러난 뒤에는 다시 휴게소로 돌아오는 경로를 규정하였다.

○特派大使陛見接待迎接節次
 一 陛見當日에 禮式院官員이 轎子와 兵丁巡檢을 帶同하 고 前往大使留住處하야 迎接入闕할 事. (중략)
 一 休憩所에서 禮式院長이 大使를 茶菓로 接待할 事.
 一 禮式院長이 大使의 入內함을 奏稟할 事.
 一 禮式院長이 大使를 引導하야 陛見室에 入할 事.
 一 大使가 陛見禮를 畢한 後에 休憩所로 退出할 事.

국서를 봉정하는 공사나 고종을 알현하는 외국 황족의 경우는 황궁 정문을 통과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지정 궐문을 통해 입궐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탈것에서 내리는 첫 장소는 모두 휴게소 계단 밑으로 통일되었다. 알현 후 퇴궐하는 절차는 입궐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휴게소를 거친다고 정하였으므로, 대한제국의 외교관 의례에서 휴게소는 고종 알현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1902년 6월 23일 예식원은 『예식장정』을 외국 공관에 배포하였고, 23) 1903년 3월로 연기된 창경예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을 계획한 일본 山階宮 菊麻呂王의 의례 준비를 위하여 『예식장정』의 「외국황족폐현급영송식」을 안내하였다. 2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경운궁 휴게소는 대한제국의 본격적인 외교관 의례공간으로 실제 사용을 염두하고 건립되었다고 하겠다.

3-2. 경운궁 휴게소의 위치

경운궁 휴게소는 1904년 대화재 이전에 건립된 근대 건축으로서 영건의례나 궁궐도형류에 남아있지 않다. 휴게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는 Homer Bezaleel Hulbert가 1904년 4월 발행한 『Korea Review』의 「The Burning of Palace」 기사에 수록된 배치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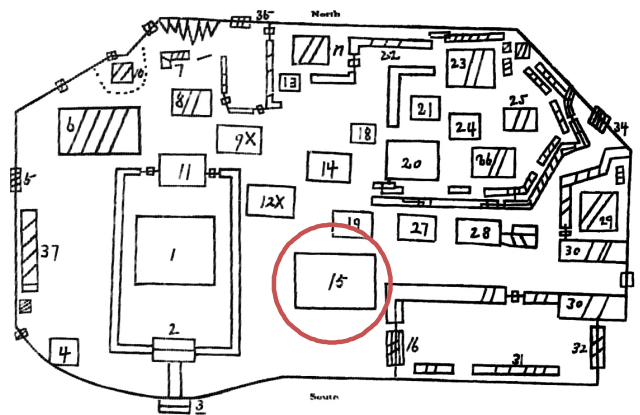


그림 2. 1904년 경운궁 배치도 속의 휴게소
 1_Audience Hall, 2_Chung-wha Gate, 3_Viaduct, 15_Foreign Reception Hall, 16_Cho-yun Gate, 19_Ceremonial Office, 27_Business office, 32_Te-an Gate

* 원 표시는 필자 편집, 범례는 필자가 원본에서 선별 (출처: Hulbert, Homer B., 「The Burning of Palace」, Korea Review, v.4, 1904.4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44쪽에서 재인용))

23) 김문식, 앞의 논문, 2011, 144쪽

24) 김문식, 앞의 논문, 2011, 34쪽

<그림 2>의 중앙에는 Foreign Reception Hall(15번)이 묘사되어 있다. 이 건물은 동쪽의 Cho-yun Gate(16번, 조원문), 서쪽의 Audience Hall(1번, 중화전)과 행각, 북쪽의 Ceremonial Office(19번)로 둘러싸여 있다.

Foreign Reception Hall의 위치는 대안문(32번)과 조원문(16번)을 통해 경운궁에 들어온 외교관이 처음 맞이하는 건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식장정』의 근대 외교 의례에 따르면, 궐문을 통해 경운궁에 도착한 외교관이 탈 것에서 내려서(下轎) 처음 당도하는 장소가 휴게소 계단 아래(階下)이며, 휴게소에 도착한 뒤 예식원장의 인도를 받아 폐현실, 즉 정전으로 이동하고, 의례 후에는 휴게소를 경유하여 퇴궐하도록 규정하였다.²⁵⁾ 이러한 경로를 통해 유추해보면, 휴게소의 위치가 궐문, 폐현실(정전), 예식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바로 이 위치가 1904년 경운궁 배치도 속의 Foreign Reception Hall이며, 1898~1902년에 건립된 경운궁 휴게소에 해당한다.

한편 중화전은 Audience Hall(1번)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전이 『예식장정』에서 규정한 알현실이 된다. 따라서 2단계 공사에서 조성된 양관 복도는 휴게소와 중화전을 연결하는 동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Ceremonial Office(19번)는 근대식 외교 의례를 전담하는 예식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문 건물명이 예식원의 뜻과 상통할 뿐만 아니라 휴게소와 인접한 위치에서 외교관 의례를 주관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Hulbert는 1898~1902년에 조성된 경운궁 휴게소를 Foreign Reception Hall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위치는 대안문-조원문-중화문-중화전으로 구성된 연속체계의 한복판이 된다. 이것은 경운궁의 근대적 외교관 의례의 시작과 끝이 바로 휴게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운궁 휴게소는 근대적 외교의례를 위해 새롭게 고안된 의례공간을 경운궁 공간 체계에 편입한 사례이다. 동아시아 궁궐건축이 공유하는 전통적인 문당제(門堂制)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운궁을 근대적 의례공간으로 개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5) 이 과정은 1902년 중화전 남쪽에서 정문으로 사용하던 인화문이 철거된 후 대안문이 정문이 되고(안장모는 중화전 건설당시의 사진, 지도 등의 시각자료 속에 인화문이 등장하지 않으며, 1900년 대안문 주변 석물 공사와 1902년 조원문 상량 기록으로 미루어 인화문을 철거하고 조원문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안장모,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동녘, 2009, 113~120쪽 참조) 조원문이 중화전의 외삼문으로 사용됨으로써 형성된 입궐 경로와 동일하다(『고종실록』, 42권, 1902(고종 39).10.19, 宮內府, 以“中和殿外三門門號, ‘朝元’議定”, 上奏. 允之.)

4. 경운궁 휴게소의 3단계 공사와 새로운 건축 시스템

4-1. 1단계 공사: 대형 전각과 옥장(褥匠)의 참여
1899년 11월 13일 탁지부대신 조병직(趙秉稷)이 발송한 첫 번째 청의서의 명세서에 기록된 휴게소 건물의 규모는 총 55칸의 대형 전각으로 확인되었다. Hulbert의 경운궁 배치도에서 중화전과 휴게소가 비슷한 크기로 묘사된 사실도 참고가 된다.<그림 2>

표 2. 경운궁 휴게소 1단계 공사 명세서

번호	품목	수량	금액
1	休憩所造成費	48間	11,665원 60전
2	廚房廁間陽室造成費	7間	1,420원
3	木柵造成費	19間	184원
4	帽架價	2坐	120원
5	洋花氈子價	366碼	572원 61전
6	門口席價	4立	19원 20전
7	褥匠工錢	16人	9원 60전
소 계			13,991원 1전

<표 2>의 공사명세서를 살펴보면, 총 55칸 중 48칸은 휴게소로, 나머지 7칸은 주방, 화장실, 양실로 계획되었다. 휴게소의 외부에는 19칸 길이의 목책도 함께 계획되었다. 실내에는 모자걸이(帽架) 2좌, 문양이 있는 양탄자(洋花氈子) 366마(碼, yard) 그리고 도어매트(door mat)로 추정되는 문구석(門口席)이 소용되었다.

휴게소 신축공사에는 옥장(褥匠) 16명이 별도로 기술된 것이 특징이다. 옥장은 행사에서 깔개로 사용하는 요나 자리를 일컫는 옥석(褥席)을 만드는 장인으로 추정된다. 옥석은 주로 국장(國葬)에서 신주나 기물을 내려놓는 자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옥장은 현존하는 영건의례에는 등장한 바가 없으며, 주로 국장도감의례에 등장하였다²⁶⁾. 바닥 깔개에 능숙한 옥장이 특별히 16명이나 계획된 사실은 366마 분량의 양탄자 설치공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양식 건축 내장재를 설치하기 위한 옥장이 건축공사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기존 옥장의 업역이 확대되었거나 새로운 기술자를 기존의 건축 관련 장인 조직에 편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기존 궁궐 건축에 새로운 기술자 또는 건축 기술이 도입되었음을 보여준다.

26) 『景宗國葬都監儀軌』(1725년, 奎13566), 하권 「國葬都監二房儀軌-工匠秩」에는 공조에 속한 옥장 安泰相와 林士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4-2. 2단계 공사: 서양식 복도 공간과 청국 기술자 1900년 1월 22일 발송된 2단계 공사의 청의서에는 휴게소 복도를 서양식(洋製)으로 조성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本月九日宮內府大臣署理第七號照會를 接準은은즉 內開 休憩所復道洋製所入費 銀貨二千六百七十三元七十一鎊을...(밀줄 저자, 후략)

이때의 명세서에는 서양식 조명시설, 난방시설, 위생 시설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표 3> 조명시설로는 화유리18촉과등(花琉璃十八燭掛燈), 동8촉과등(銅八燭掛燈)으로 기록된 상들리에(掛燈)와 양초벽등(洋燭壁燈)이 소용되었다. 조명에 사용되는 양초(洋燭)는 총 6상자(箱)를 구매하였다. 난방시설로는 난로철간간(煖爐鐵欄干)으로 기록된 라지에이터(radiator)와 석탄 저장통(coal scuttle)으로 번역되는 매두(煤斗)가 있다. 석탄통은 라지에이터에 사용되는 온수를 만드는 보일러의 연료 보관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위생시설로는 변기(埋後桶)와 세면대가 소용되었다. 변기는 서양식사기변기(西洋沙器埋後桶) 4쌍(雙)과 서양식유목변기(西洋油木埋後桶) 2좌(坐)가 계획되었다. 품목명에 '서양'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궁궐 고유의 이동식 변기인 매우통이 아닌 현대와 같이 화장실에 설치하는 변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양세면대제구(西洋洗水臺諸具)가 계획되었다. 세면대와 부속물품 일체를 서양식으로 갖추고자 하였다.

이 외에, 수도개조(水道改造) 공사는 휴게소의 세면대 등에 소용되는 물을 다루기 위한 공사이거나 건축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기존 수도설비의 변경 공사로 추정할 수 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궁궐 건축공사에 수도설비 공사가 병행하는 사례로써 흔치 않은 공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단계 공사에 참여한 인력을 살펴보면, 중국인 목수(淸人木手), 중국인 모군(淸人募軍), 중국인 조각장(淸人刻手匠) 세 가지 유형의 중국 인력이 기록되었다. 중국 기술자가 궁궐 건축공사에 참여한 사례는 1884년 완공된 번사창과 1891년 완공된 경복궁 관문각 관련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²⁷⁾ 공사 관련

27) 번사창 상량문 말미의 공사 관계자 명단에 “淸國津工 方德奎 張德山”이 기록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근대건축』, 2009, 12~13쪽)

관문각 건립 공사에 참여한 중국인 우두머리 직공(工頭)의 체불인금을 지급하라는 건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인천항 감리(監理)에게 보낸 관문(關文)에서, 黃月亭을 포함 중국인 기술자 총 8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인천광역시 역사자

명세서에 중국인 기술자를 직접 기술한 사례로는 경운궁 휴게소가 특징적이다.

표 3. 경운궁 휴게소 2단계 공사 명세서

번호	품목	수량	금액
1	長坵石價 治石工價并	60尺	83원
2	各項木物價		198원 40전
3	引鉅匠工價		78원 96전
4	咸錫瓦價	32張	59원 40전
5	咸錫價	5張	16원 70전
6	咸錫螺絲釘價		30원 10전
7	泥匠工價		15원 80전
8	淸人木手都給條		350원
9	淸人募軍雇價		13원 32전
10	淸人刻手匠工價		100원
11	漆匠工價		18원
12	定路人造石長坵石 治石工價并		74원 63전
13	磚石價	1,000張	12원
14	前後保土與水道改造工價		60원 80전
15	牌將守直使喚至臘兩朔條		44원
16	石灰價		11원
17	洋花石價	282碼	366원 60전
18	各項物負來雇		88원 20전
19	花琉璃十八燭掛燈價	2坐	480원
20	銅八燭掛燈價	2坐	312원
21	洋燭壁燈價	2坐	48원
22	西洋沙器埋後桶價	4雙	19원 20전
23	西洋油木埋後桶價	2坐	33원 60전
24	西洋洗水臺諸具價		33원 60전
25	煤斗價	2箇	16원 80전
26	長明燈價	2坐	15원
27	煖爐鐵欄干價	2箇	44원 80전
28	洋燭價	6箱	29원 80전
소 계			2,673원 71전

중국인 목수는 도급(都給)으로 비용이 지급되었다. 이 시기의 도급 방식은 ‘품삿을 한꺼번에 주고 일을 시키다’의 의미로 추정된다.²⁸⁾ 실제로 각항목물가(各項木物價)라는 품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목재 비용은 이미 산출되었다고 하겠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산할 경우에는 ‘長坵石價 治石工價并’의 품목처럼 각각을 병

료관, 『역주 인천항관초(하)』, 인천광역시, 2010, 295-296쪽; 孫科志, 『近代中韓關係史上的傳奇人物-黃月亭』, 當代韓國, 2008년夏季号에서 재인용)

28) 김명철, 「민법상 ‘도급(都給)’ 용어에 대한 사적 고찰」, 법학논총, 제34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7, 65~67쪽

기한 방식으로 미루어, 중국인 목수 도급 비용은 인건비만을 계상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⁹⁾ 이 도급 인건비는 전체 공사비 2,673원71전 중 463원32전(17.3%)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인 조각장은 영건의례에서 공포를 조각하는 조각장의 작업과 구별되는 중국식 또는 서양식의 건축용 조각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된다.³⁰⁾

명세서에 기록된 다양한 유형의 중국인 공사인력은 1900년 경 이미 대한제국 관영공사에 참여하는 중국인 기술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궁궐에 서양식 건축공간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4-3. 3단계 공사: 각종 마감 재료와 기술자

제 3단계 공사는 휴게소 양실(陽室)과 차양(遮陽)의 신축공사 그리고 휴게소 수리와 목책 신축공사의 두 건으로 구성되었다. 청의서에 부속된 명세서 제목에 따르면, 양실(陽室)은 전면 28칸과 후면 7칸이며 차양(遮陽)은 7칸이 신축되었다.

休憩所前面陽室二十八間與後面陽室七間遮陽七間新建明細書

<표 4>의 공사 명세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실과 차양은 큰 기둥(大樓柱)을 세우고 천장과 바닥에 소나무 판재(天板薄松, 地板長松)로 마감하고 줄함석(漚咸錫) 지붕을 덮었다고 추정된다. 청색과 홍색 벽돌(靑紅壁石)이 8,500장 소요된 것으로 미루어 화려한 벽돌 벽이 만들어졌으며, 벽체 하부에는 장대석(長大石)이 받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목수(木手)와 각수(刻手)가 중국인인 것으로 미루어 목재와 벽돌을 사용하는 구법이 전통 궁궐건축 양식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도색(塗色) 재료는 녹색(綠柒)과 옥색(玉色柒)의 안료 및 동유(桐油, Tung Oil)와 송절유(松節油, Turpentine, 테러빈-유), 화생유(花生油)의 희석제를 확인할 수 있다.³¹⁾ 기존 영건의례의 단청재료에서는 안료 자체의 명

29) 1898년 9월 7일의 원구단 황궁우 공사비 청의서의 명세서에서 목수, 석수, 개와장, 니장의 비용을 도급으로 다루고 있다. (『各部請議書存案』, 제8책, 1989.09.07., 『園丘壇皇穹宇役費를 預算外支出請議書 第百六十四號』)

또한 1900년 1월 24일의 홍릉 제실·전후행각 신축공사비 청의서의 명세서에서는 제실 14칸 담당 목수와 행각 30칸 담당 목수의 비용을 각각 도급으로 계획하였고 이와 별도로 목재 가격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各部請議書存案』, 제13책, 1900.01.24., 『洪陵內齋室及前後行閣新建費를 預算外支出請議書 第十號』) 이 시기의 도급은 인건비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영건의례유에 기록된 조각장은 목수의 도안을 바탕으로 공포부재의 조각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영건의례연구회, 『영건의례-의례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143~144쪽)

표 4. 경운궁 휴게소 3단계 공사 중 전후면 양실과 차양 공사 명세서

번호	품목	수량	금액
1	大樓柱價	96個	652원 80전
2	大樑 車夫雇價 船匠工價	5個	36원
3	天板薄松價	550立	134원 40전
4	地板長松價	380立	140원 80전
5	車夫雇價 負入雇價		106원 70전4리
6	引鉅匠工價		511원
7	加里募軍雇價		56원
8	漚咸錫價	230丈	913원 10전
9	花板通穴釘價	8個	24원
10	各項鐵物價		79원 56전
11	長大石價 治石雇價	147尺	175원
12	舊長大石 治石工價	178尺	56원 96전
13	靑紅壁石價	8,500丈	160원
14	石炭價	10石	10원 80전
15	白土價	15箱	24원
16	細沙價	10箱	16원
17	泥匠工價		35원
18	大琉璃價	2箱	66원
19	綠柒價	4通	48원
20	玉色柒價	4通	48원
21	桐油價	2桶	60원
22	松節油價	2桶	24원
23	花生油價	5斤	2원
24	淸人木手工價		1,990원
25	淸人刻手工價		350원
26	柒匠工價		275원
27	募軍工價	600名	180원
28	雜費		60원
소 계			6,235원 12전4리

칭을 다루고, 안료의 고착을 위한 접착제와 도포제가 사용되었던 반면,³²⁾ 휴게소에서는 색상명과 희석제가 사용되었다. 색상 자체가 기존의 단청 색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합성안료를 사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도색을 담당하는 칠장(柒匠)은 영건의례의 장인 유형과 동일하므로³³⁾ 기존 단청 기술자의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 동유(桐油)란 유동(油桐) 씨에서 짜 낸 건성 기름으로, 도료와 인쇄잉크의 원료로 사용되며, 테러빈-유는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는 정유로 용제·합성 장뇌·페인트·구두약 따위를 만드는 데 쓰인다.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화생유(花生油)는 땅콩기름으로 번역되며, 동유, 테러빈-유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32) 영건의례연구회, 앞의 책, 2010, 962~965쪽

33) 영건의례연구회, 앞의 책, 2010, 150~151쪽

또한 대유리(大琉璃)는 대표적인 근대건축재료로서 중요하다. 1902년 이용익이 설립한 국립유리제조소인 유리창(琉璃廠)은 러시아 기술자를 고용하여 유리를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러일전쟁의 여파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³⁴⁾ 휴게소에 적용된 건축용 판유리는 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공사의 두 번째 명세서는 기존 휴게소의 수리와 목책 세 칸의 신축을 다루고 있다. <표 5>의 공사 명세서를 살펴보면, 삼첩지(三牒紙)와 도배풀에 사용되는 밀가루(眞末) 및 도배공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삼첩지는 재벌용 도배지나 장지문에 사용되었으므로,³⁵⁾ 휴게소에 전통 도배로 시공된 부분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5. 경운궁 휴게소 3단계 공사 중 휴게소 수리공사와 목책 신축공사 명세서

번호	품목	수량	금액	비고
1	三牒紙	80束	26원 44전	
2	塗背匠工		13원	
3	眞末	15升	1원 80전	
4	補土,募軍雇		42원 22전	
5	長木	10尺	10원	治石工 포함
6	柱石	4個	6원	治石工 포함
7	穴石	3個	4원 50전	
8	泥匠	1名	80전	
9	咸錫水流桶	262尺	162원 44전	
10	綠柒		8원	
12	玉色柒		6원 70전	
13	柒匠		11원	
14	花琉璃	5丈	2원	
15	鎖金	1個	2원 50전	
16	雜費		2원 48전	
소 계			301원 40전	

함석물흙통(咸錫水流桶)이 사용된 것은 지붕 처마 끝에 빗물받이 흙통을 전체적으로 둘렀다고 추정되며, 262척의 수량은 전체 지붕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 녹색과 옥색의 도료가 사용되었고 문양이 있는 화유리(花琉璃)를 사용한 것은 휴게소 양실·차양 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대건축 재료인 유리창이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경운궁 휴게소 건축공사에 중국인 기술자가 참여하

고 근대적 건축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 궁궐 전각과 구별되는 혼종적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옥색, 녹색 도료와 함석지붕 등의 건축자재는 이색적인 건축외관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운궁 휴게소는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감각의 새로운 궁궐 전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대한제국의 경운궁 조성과 근대적 외교관 의례 성립 과정 속에서 1899~1902년에 진행된 경운궁 휴게소 건축공사를 분석함으로써, 대한제국 의례 속 휴게소의 역할과 켈내 위치를 도출함과 동시에 휴게소 공사를 통해서 당시의 건축기술과 궁궐 전각의 근대적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경운궁 휴게소는 대한제국이 근대적 의례를 성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절차상 새롭게 요구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고종의 칭경예식을 대비하여 작성된 『예식장정』에서는 외교관이 켈내에서 고종을 알현하는 절차 전후로 휴게소를 경유하도록 하였다. 중화전의 외삼문에 해당하는 조원문 바로 안쪽에 건립된 휴게소는 켈내 고종 알현 절차의 시작과 끝이었다.

경운궁 휴게소는 중국인 기술자가 참여하고 각종 근대 건축 재료가 적용된 양관으로 건립되었다. 유리, 벽돌, 서양 위생도기와 조명기구뿐만 아니라 녹색, 옥색의 도료는 경운궁 환복관에 이국적인 건물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자재를 적용하기 위하여 중국인 기술자는 목공사를 도급으로 담당하였고 중국인 조각 기술자와 모꾼까지도 참여하였다. 또한, 옥장(褥匠)이 이례적으로 건축조직에 참여하였고 칠장(柒匠)의 역할이 확대된 점은 기존 궁궐 건축조직과 차별화된 상황을 보여준다.

경운궁 휴게소는 대한제국의 관리 하에 근대적 건축 기술이 반영된 궁궐 전각이다. 휴게소 공간의 건축계획과 공사비는 대한제국 최고의결 기구인 의정부의 회의를 거쳐 고종의 제가를 받았다. 총 세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 공사는 『주본』이라는 공문서에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휴게소는 경운궁의 양관 중에서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한제국의 근대적 외교관 의례에 의거하여 건립된 양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4) 강성원, 앞의 논문, 2008, 63쪽; 강명관,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 안경, 망원경, 자명종으로 살펴보는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사』, 휴먼인문, 2015

러시아 기술자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録』, 24권, 「(43) 韓廷雇外國人解備處分ニ關スル件」, 1904.05.30 참조

35) 영건의궐연구회, 앞의 책, 2010, 862쪽

참고문헌

1. 『대한예전』
2. 『예식장정』
3. 『법규유편』
4. 『조선왕조실록』
5. 『경종국장도감의궤』
6. 『각부청의서존안』
7. 『예식원래거안』
8. 『기안』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0. 『독립신문』
11. 『황성신문』
12.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13. 강명관,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 안경, 망원경, 자 명종으로 살펴보는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사』, 휴먼인문, 2015
14. 강성원, 「20세기전반기 洋式建築構法の 變遷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5. 강성원, 「德壽宮 石造殿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권, 4호, 2008.04
16. 강성원·김석순, 「중명전의 기술사적 특징과 수리공사에 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05
17. 김명철, 「민법상 ‘도급(都給)’ 용어에 대한 사적 고찰」, 법학논총, 제34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7,
18. 김문식, 「고종 황제의 외교관 접견 의례」, 일본학연구, 제32집, 2011.01
19. 김문식, 「대한제국의 외교의례서, 『예식장정』」, 문헌과 해석, 통권 54호, 2011
20.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통권35호, 2006
21. 김문식,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편찬 양상」, 규장각, 제21집, 2009.04
22. 김은주, 『석조전』, 민속원, 2014
23.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24. 內閣記録課, 『法規類篇』, 1908
25. 문화재청,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2016
26. 문화재청,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2011
27. 문화재청, 『덕수궁 정관헌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4
28. 서울대학교·규장각, 『주본』, 규장각자료총서 금호 시리즈 의정부편, 1995-8
29.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근대건축』, 2009
30. 孫科志, 「近代中韓關係史上的傳奇人物 - 黃月亭」, 當代韓國, 2008年夏季号
31. 신혜원·한동수, 「덕수궁(德壽宮) 정관헌(靜觀軒)의 양식 고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권, 1호, 2005. 10
32. 안창모,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동녘, 2009
33. 엠마 크뢰벨,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되었나』, 민속원, 김영자 역, 2015
34.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35. 우동선, 「경운궁(慶運宮)의 양관(洋館)들 : 돈덕전과 석조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40호, 2010
36. 윤일주, 『한국·양식건축80년사』, 야정문화사, 1965
37.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2010
3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항관초(하)』, 인천광역시, 2010
39. 전우용, 「1902년 황제어극 40년 망육순 청경예식과 황도정비- 대한제국의 ‘황도’ 구상에 담긴 만국공법적 제국과 동양적 제국의 이중 표상」, 향토서울, 제81호, 2012.06
40. 조영규, 「1902년 청경예식과 진연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41집, 2008.12
41. 홍순민, 「광무 연간 전후 경운궁의 조영 경위와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0호, 2010.8

접수(2018. 2. 15)

게재확정(2018. 3. 14)